

툽텍, 2차전지 분리막 개발 성공

HMC증권, 나노섬유 기술 적용해 차별화 ... 메이저에 납품 예상

툽텍(대표 이재환)이 2차전지 분리막 개발에 성공했다.

HMC투자증권은 “툽텍이 나노섬유 기술을 적용한 2차전지 분리막 개발에 성공했다”며 “목표주가를 2만6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다”고 2월24일 발표했다.

HMC투자증권 김영우 연구원은 “툽텍의 2차전지 분리막 기술은 기존의 소재 및 제조공법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중대형전지용 분리막을 시작으로 세계 메이저에 납품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투자 확대로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며 “삼성SDI가 박막형 태양전지에 투자하게 되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툽텍은 2011년 정부가 2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고효율 대면적 박막형 태양전지 개발 국책사업에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삼성전자의 주관 아래 22개 기관과 함께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24>